「가쿠레자토」(隱里)의 세계

박 찬 기*

目 次

1. 머리말
2. 『조센다이헤키』 4권 제2의 「가쿠레자토」
3. 『오도기보코』 11권 제1의 「가쿠레자토」
4. 「가쿠레자토」의 계보와 특색
5. 맺는말

1. 머리말

고조루리 『조센다이헤키』(朝鮮太平記, 1713년) 4권 제2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의한 조선침략 전쟁 수행 중, 그의 무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휘하에 있던 부하 쓰마키 야시치(妻木弥七)가 전령으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군의 진영으로 가던 길에 쥐가 산다는 전설적 이계인 「가쿠레자토」를 방문한다는 이향방문담이 돌연 삽입된다. 그러나 이 이향방문담은 『오도기보코』(お伽婢子、1666년) 11권 제1의 「가쿠레자토」(隱里)를 출전으로 하는 것으로, 『조센다이헤키』 4권 제2에 「고니시 셋츠노가미 삼도에 진을 치는 일 및 부하 쓰마키 야시치 가쿠레자토에 이르는 일」(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이하 「가쿠레자토」라 약칭함.) 에 받아들여져 계승· 변모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각색되었다.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 또한 그 출전으로 인정되는 중국의 선행작품 『전등신화』(剪灯新話, 1378년) 중 「신양동굴」(申陽洞窟)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신양동굴」 또한 당대의 소설 「補江総白猿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즉 「가쿠레자토」의 하나의 수직적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정형화된 하나의 〈가쿠레자토의 세계〉[1]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포대학교 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부교수

본 논문에서는 고조루리 『조센다이헤키』 4권 제2에 나타난 「가쿠레자토」를 중심으로 하여, 그 원류를 이루는 일련의 〈가쿠레자토 물〉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그 계보 및 특색을 명백히 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가쿠레자토」의 기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하는 선행의 작품으로 『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제119화 「吾妻人生贄をとゞむる事」、『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26권 제7 「美作国神依猟師謀止生贄語」、 제8 「飛弾国猿神止生贄語」와 오도기조시(お伽草子) 「가쿠레자토」、 「슈텐도지」(酒呑童子)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가쿠레자토」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작품군에는 공통적으로 「쥐와 원숭이」가 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등장의 배경에는 어떠한 전승을 포함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센다이헤키』 4권 제2의 「가쿠레자토」

『조센다이헤키』(朝鮮太平記)는 조루리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기의 고조루리가 그러하듯이, 조루리 인형극의 상연을 위한 대본이 아니라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곡절이 없는 줄거리 중심의 소위 요미혼조루리이다.[2] 『조센다이헤키』의 출전에 대해서 와카츠키 야스지(若月保治) 씨는 『古浄瑠璃の研究』第二 (1944년, 桜井書店) 에서 "『다이코키』(太閤記)를 비롯한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조센다이헤키』는 『다이코키』를 비롯한 「다이코키물」의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로부터의 영향도 인정할 수 있으나, 『오도기보코』(お伽婢子, 아사이료이(浅井了意) 작,1666년 간행)로부터 6화의 괴이담 및 이향방문담을 받아들여 새로운 각색의 변모를 시도한 요미혼조루리이다. 그 중 4권 제2의 「가쿠레자토」도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로부터 그 줄거리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요미혼조루리의 일부이다.

---

1) 일본근세문학에서의 〈세계〉는 본래는 가부키·조루리 등의 연극용어이다. 각본을 집필함에 있어서 줄거리나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한 큰 틀 내지는 시대배경으로 이용되는 기존의 전설, 모노가타리, 선행작품 혹은 일정한 인물 군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의 〈세계〉도 「가쿠레자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세계를 통한 고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한다.

2) 요미혼조루리에 대해서는 와카츠키 야스지씨에 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元来 『十二段草子』其物からが、最初は読物であり、見る本であって、決して作成の第一歩から語物であったのでないから、其以後に語物に用ひられた舞曲や、戦記物語や、新作の浄瑠璃などが、他面に於て読物でもあり、又絵入の見る本であったことは自然の勢でなければならぬ。されば浄瑠璃の初期に於てはその読物でもあり、見る本でもあることの意義の方が、寧ろ主勢力となって、寛永正保頃に於ける正本は皆絵入本であり、而も其絵に丹緑の彩色まで施したものが普通であり、そこには曲節付や墨譜の如きは殆ど全く之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った。(『古浄瑠璃の研究』第2、桜井書店、1944。)

그러면 여기에서『조센다이헤키』 4권 제2의 「가쿠레자토」는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작품이므로 여기에서 그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는 부산해의 삼도(三道)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 고니시는 부하 쓰마키 야시치(妻木弥七)에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진영에 가, 태합(太閤, 도요토미히데요시)으로부터의 전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명한다.

명을 받고 길을 떠난 야시치는 걸음을 재촉하지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저물 녘이 되어버려 길을 잃고 들을 지나 작은 언덕을 넘어 시츠단이라는 들판으로 나왔다. 마침 비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인적도 없는 곳에 원숭이 울음소리와 여우의 불빛만이 눈에 띈다. 무심코 옆을 보니 곧 무너질 듯한 당이 하나 있어 툇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려 한다. 저녁 10시쯤 되자 동쪽의 산기슭에서 등불을 든 사람들이 당을 향하여 다가온다. 야시치는 「이런 늦은 밤에 여기에 오는 자는 도깨비가 아니면 도둑놈일 것」으로 판단하고 천장에 몸을 숨긴다. 20명 정도가 당에 올라 횃불을 피우고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앉자 모두 자리를 잡는다. 창, 긴칼, 활 등을 손에 들고 서있는데, 얼굴은 모두 원숭이와 같다. 야시치는 활을 들고 조준하여 상좌에 앉아있는 원숭이에게 활을 쏜다. 대장 원숭이가 팔꿈치에 맞아 소리를 지르니, 모두 놀라 도망친다.

날이 밝은 후 전날 밤의 흔적을 찾아 나선 야시치는 커다란 땅속 동굴을 발견한다. 의심쩍어 이것저것 살피는 중에 밤에 내린 비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속의 동굴에 빠져버린다. 동굴은 깊고 암벽이 높아 올라갈 방법도 없다. 또한 어둡고 컴컴하여 여기서 죽는 수밖에는 없다고 단념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으로 난 구멍이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한 마을의 넓이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주 밝은 곳이었다. 바위로 지은 집에 돌 대문이 있고 많은 사람이 보초를 서고있다. 자세히 보니 어제 밤 당에 들른 원숭이들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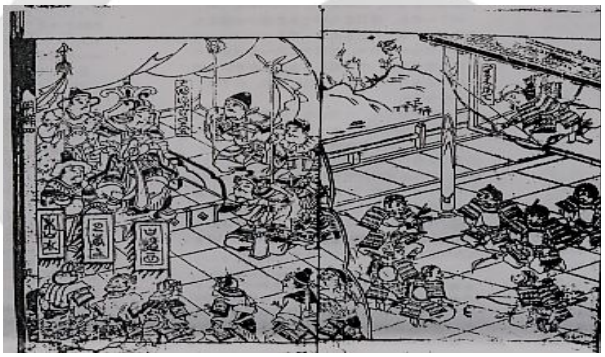
보초들은 놀라 누구냐고 묻는다. 야시치는 「조선의 삼도에 사는 사람으로, 약을 구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미끄러져 이곳에 빠진 자로 직업이 약사」라 자신을 소개하고, 돌아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보초들이 기뻐하며 어제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맞아들인다.

이상하게 생각한 야시치가 자세히 보니 어제 밤에 자신이 쏜 화살에 맞은 원숭이의 양옆에는 두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야시치는 원숭이의 진맥을 한 후 봉투에서 불로장생의 약이라며 꺼내 준다. 모두 불사의 약이라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투어 약을 받으려 하나, 본래 이 약은 화살 끝에 발라 짐승을 잡는데 쓰이는 맹독성의 약이다. 앞을 다투어 약을 복용한 원숭이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야시치는 긴칼로 모두 36마리를 쳐죽이고 두 명의 여인도 죽이려 한다. 이때 여인들이 울며 말하기를 「한 여인은 마루야마(丸山) 출신의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부산의 구창이라는 곳의 여인인데 뜻하지 않게 이곳에 붙들려와 도망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의 시녀가 된 것이 60일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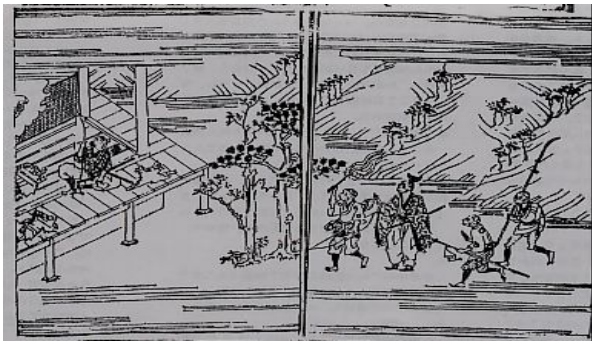
야시치가 동굴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곳에 흰옷에 에보시를 쓴 쥐 십 여 마리가 나타나 야시치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다. 그것은 「이곳이 본래는 자신들의 거주지였는데 원숭이에게 빼앗겨버렸으나 되찾을 힘이 없어 난처해하던 중, 이렇게 당신이 원숭이를 퇴치했으니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손에 황금을 들고 온 쥐는 야시치에게 주며 감사의 표시를 한다. 그 모습은 모두 눈은 둥글고 입이 뾰족하며 수염을 기른 쥐의 모습이었다. 야시치가 「이곳이 어디냐」고 묻자, 쥐가 답하길 「우리는 다이코쿠 텐진(大黒天神)의 사자로, 500년이 되면 한번 둔갑한다 그러나 원숭이는 800년을 살므로 당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쥐의 도움으로 「가쿠레자토」에서 탈출한 야시치는 두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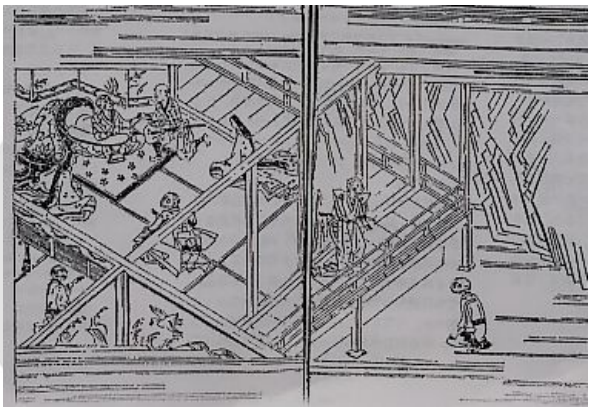
이것은 이미 언급한 듯이 『오도기보코』 11권의 1 「가쿠레자토」의 출전으로부터 충실히 그 줄거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삽화(그림①은 그림②, ③을 합성한 형태의 그림)도 서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 그 영향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림① 『朝鮮太平記』 4권제2 「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



그림② 『お伽婢子』 11의 1 「隱里」



그림③ 「隱里」

그러나 『조센다이헤키』의 「가쿠레자토」에는 출전과는 다른 몇 가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오도기보코』에서는 「가쿠레자토」에 빠진 우츠미노 마타고로(内海又五郎)의 이향 방문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우츠미노 마다고로라는 자로 무예를 즐기며 활쏘기와 말타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중 략) 세상의 변화에 맞춰 입신출세하려고 수도로 올라갔지만 의지하려했던 아카마츠는 이미 죽었다 한다. 맥이 빠져있던 중, 고토가몬이 우지에 있다고 한다. 이곳에 가서 의지해 보려고 찾아간다. 해는 이미 저물고 길을 찾지 못해 들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구르스노라는 곳에 나왔다. 3)

3) 内海又五郎とて、武芸をたしなみ、弓馬の道に稽古の功をかさね、(中略) 世の変にまかせて立身せばやとおもひ立て、京都にのぼりしかば、赤松は身まかりたりと聞ゆ。さては力なし。後藤掃部が宇治にありといふ。こゝに行て頼まんと思ひ、あしにまかせて尋ね行。日すでに暮かかり、道にふみまよひて、草原小坂をさしこへさしこへ、栗栖野といふ所に出たり。(p64)

우츠미노 마다고로는 스스로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하여 교토로 올라가던 중 「가쿠레자토」의 동굴에 빠지게되나, 『조센다이헤키』에서는 「쓰마키 야시치를 불러 너는 기요마사의 진영에 가서 태합으로부터의 속보가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妻木弥七を近付汝清正の陣に行て、太閤よりの御飛脚未参らざるが聞て参れと有。)는 전령으로, 조선침략의 전쟁을 수행하던 중 상관의 명을 받들고 가다가 동굴에 빠지게된다는 설정이다.

둘째 「가쿠레자토」의 지명이 『오도기보코』에서는 일본의 고하다야마(木幡山) 근방의 「구르스노」(栗栖野)이고, 『조센다이헤키』에서는 조선의 「시츠단」(불명)으로 설정된다. 셋째 원숭이에게 붙잡혀와 시중을 드는 두 여인이 『오도기보코』에서는 모두 일본의 여염집 여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조센다이헤키』에서는 한 여인은 「나가사키 마루야마의 유녀」이고 또 한 여인은 부산해 구창 출신의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넷째 『오도기보코』에서의 마다고로는 후일 「가쿠레자토」가 있던 장소를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마다고로는 자식도 없었으며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전문적 문체로 맺고있으나, 『조센다이헤키』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

첫째, 둘째, 셋째의 차이는 일본을 무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의 공간 설정에서 조선을 무대 배경으로 설정하는 『조센다이헤키』의 「가쿠레자토」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이점일 것이다.

단 일본의 고하다야마가 조선의 지역으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설정되는 「시츠단」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 「원숭이에게 인질로 붙잡힌 여인들을 구출하고 후일 구출한 여인을 처로 맞이한다」는 모티브는 일찍부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전승된 이야기(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서술은 다음 항에서 언급함)이지만, 조선에는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은 탓도 있어서 원숭이를 소재로 한 전승동화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을 무대배경으로 하면서 원숭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설정이기는 하나 출전으로부터 충실한 탓으로 그대로 원숭이를 등장시키고 있다.

다음 마지막 넷째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작자의 창작의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여인을 처로 맞아들인 마다고로는 무사의 뜻을 버리고 부유하고 안온한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문장의 다음에,

> 후에 또 고하다야마의 들녘에 들러보니 동굴은 흔적도 없고 소나무와 갈대만이 무성하다. 마다고로는 뒤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 행방도 알 수가 없다[4]

4) 後に又、木幡山の野はづれを尋ぬるに、かへり出たるあなは跡もなく、松茅しげり、草ぶかとぢたるばかり也。又五郎は後つゐに子もなく、その行がたをしらず。(p72)

라는 전기적 문체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출전으로 인정되는 중국의 「신양동굴」에는 없는 아사이 료이의 창작 부분이다. 이러한 전기적 패턴의 문체는 작품의 전기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주인공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 사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된다. 즉 전승성을 강조한 문체로 끝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작품을 계승하고 있는 『조센다이헤키』의 「가쿠레자토」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 두 여인을 부모에게 보내자 부모들이 기뻐하여 야시치를 두 집안의 사위로 맞이한다. 그 후 야시치는 무용을 버리고 농사꾼이 되어 세상을 편하게 보냈다.[5]

여기에는 『오도기보코』 「가쿠레자토」의 전승적 문체를 생략한 형태로 문을 맺는다. 이것은 출전과는 다른 사실성을 중시한 문체이며 고조루리 작자의 창작의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래 고조루리 『조센다이헤키』가 요미혼조루리로서 「군기모노가타리」적 요소를 띤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쿠레자토」의 이향방문담을 삽입하면서도 전기적 문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사실성을 중시한 문체로 일관하려고 하는 작자의 창작의도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3. 『오도기보코』 11권 제1 「가쿠레자토」

『조센다이헤키』 4권 제2의 「가쿠레자토」는 상기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의 줄거리가 『오도기보코』 11권 제1의 「가쿠레자토」와 거의 중복된다. 따라서 그 영향관계를 단정할 수 있으나,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 또한 그 출전으로 추정되는 선행 작품 군이 있다. 에모토 히로시(江本裕)씨는 『오도기보코』 4권 제2 「가쿠레자토」의 출전을 중국의 『전등신화』(剪灯新話) 중 「신양동굴」(申陽洞窟)에 근거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신양동굴」 또한 그 선행의 당대소설인 「補江総白猿伝」에 의한다고 지적한다.[6] 확실히 에모토씨의 지적대로 그 영향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사이 료이의 「가쿠레자토」는 중국의 「신양동굴」로부터 「원숭이를 퇴치하여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고 그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모티브와 이것과 결합된 쥐와 관련된 이류가 사는 동굴 「가쿠레자토」를 방문한다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출전으로부터 취하고 있지만, 중국작품을 일본풍으로 번안하는 데 있어서는 작자 나름대로의 창작이 필요했을 것이다.

---

5) 二人の娘を親のもとに送りしに親共大きに悦び弥七を両家のむことす。夫より弥七ぶゆふを捨て百姓と也て世をらくらくとおくりぬ。(구두점은 필자에 의함.)

6) 江本裕校訂(1988) 『お伽婢子』 2. 東洋文庫. 참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토리 전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와 「신양동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두 작품 모두 쥐 구멍(가쿠레자토)을 연상시키는 장소를 설정하고 있다. 즉 「신양동굴」에 나타난 중국의 隴西는 중국의 백과사전 「太平御覧」에 의하면 「晋太康地記曰鳥鼠之山在隴西首陽県穴入三四尺鼠在内鳥在外」라 기술되어 쥐와 관련된 장소로 隴西가 설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가쿠레자토」의 무대가 되면 고하다야마(木幡山)로 바뀌는 것이다.

② 「신양동굴」 원숭이 퇴치의 주인공 이덕봉(李德逢), 「가쿠레자토」의 주인공 우츠미노 마다고로는 모두 무용이 뛰어나며 특히 승마와 활의 명인으로 묘사된다.

③ 지인을 의지하여 수도로 올라가 보지만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다.

④ 독약을 불로장생의 약이라 하여 나누어주고 모두 36마리의 원숭이를 퇴치한다.

⑤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고 쥐의 도움으로 「가쿠레자토」를 빠져나온 주인공은 여인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그 여인들을 처로 맞이한다.

⑥ 그 후 쥐구멍이 있던 장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전승성을 강조하는 문체로 끝을 맺고있다.

이러한 공통점에서는 「가쿠레자토」의 골격을 이루는 원숭이를 퇴치하고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는 이야기의 모티브와 쥐가 사는 별천지의 세계를 혼합한 형태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출전에 근거하여 충실히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쿠레자토」에는 출전을 일본풍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상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주인공의 성격묘사에 있어서 「가쿠레자토」에는 「그 본성이 강직하고 대담한 자」(そのこゝろ根きはめて不敵もの)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양동굴」에서는 주인공의 호탕하고 용맹함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게을리 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고 있던」(生業をつとめないので、土地の者には軽蔑されていた)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2) 「신양동굴」의 이덕봉은 지인을 의지하여 도시를 찾아갔으나 그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어버려 방황하던 중 사슴이 눈에 띄어 사냥을 하려고 사슴을 쫓다가 해가 저물어 당에서 밤을 지새다가 원숭이 무리를 만난다는 전개이다. 「가쿠레자토」의 우츠미노 마다고로는 입신 출세의 뜻을 품고 지인을 찾아가던 중에 밤이 되어 太元堂의 툇마루에 앉아 밤을 새우다가 원숭이를 만난다.

3) 「신양동굴」에는 錢翁이라는 부자집 딸이 행방불명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원숭이에게 인질로 잡혀간 세 명의 아가씨가 등장한다. 「가쿠레자토」에는 두 명의 여인이 인질로 잡혀와 원숭이의 시중을 든다.

4) 「신양동굴」에는 錢翁의 딸이 원숭이에게 인질로 잡혀 반년이 지났지만, 「가쿠레자토」에는 「60일 정도」로 표현된다.

5) 「신양동굴」에서는 쥐들이 나타나 원숭이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원숭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쥐는 아직 50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숭이는 800세이므로」 대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가쿠레자토」에는 「쥐는 500년이 지나 한번 둔갑하고, 그들은 800년이 지나면 한번 둔갑한다.」(寿五百歳をたもちて一たび変ず、かれらは八百歳をたもちてのちに一たび変ず。)고 묘사한다. 이것은 중국의 백과사전 『太平御覧』의 「又玉策記称鼠寿三百歳満則色白善憑人」의 기술과 같이, 쥐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신통력을 갖춘다는 기술에 근거한 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6) 「신양동굴」은 원숭이와 관련된 「申=(さる)원숭이」 제명으로 붙여진 것에 대해서 「가쿠레자토」는 「鼠の隠里」로 쥐와 관련된 제명을 취하고 있다.

7) 「신양동굴」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전의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以前の跡形もなかったという。) 는 전문적 형태로 문을 맺고 있다. 「가쿠레자토」에는 이것에 더하여 「마다고로는 후사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 행방도 모른다」(又五郎は後つぎに子もなく、その行がたしらず。)는 문체로 「가쿠레자토」에서의 경험은 마다고로 일대로 끝나버렸다는 전설적 패턴을 강조하는 문체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오도기보코』의 서문 중 「時面見ざるをもって今聞所を疑ことなかれと、伝爾」라는 문장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설화의 전승적 문체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는 중국의 「신양동굴」로부터 세밀한 부분에서는 다소의 상이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대부분을 출전으로부터 충실히 번안한 작품이다.

4.「가쿠레자토」의 계보와 특색

인간의 세계와 이계의 사이를 왕래하는 공간세계를 그리고 있는 「가쿠레자토」의 세계는 크게는 「원숭이를 퇴치하여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고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기본적인 모티브와 쥐가 사는 별천지의 「쥐의 동굴」 세계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는 이미 언급한 중국의 당대소설 『補江総白猿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등신화』의 「신양동굴」로, 또 이것을 출전으로 한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로 이어져, 그리고 이것을 계승한 『조센다이헤키』의 4권 제2에 「고니시 셋츠노가미 삼도에 진을 치는 일 및 부하 쓰마키 야시치 가쿠레자토에 이르는 일」(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이하 「가쿠레자토」라 약칭함) 로 이어져 하나의 수직적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쿠레자토」에 나타난 「원숭이를 퇴치하여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고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기본적인 세계를 다룬 작품이 나타난 것은 일찍이『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巻26 제7의 「美作国神依猟師謀止生贄語」,제8「飛弾国猿神止生贄語」、『宇治拾遺物語』119話 「吾妻人生贄をとゞむる事」 등이 있다.

그러면 우선 『곤자쿠모노가타리』 26권 제7 「미마사카의 나라의 신 사냥꾼의 꾀에 의해 인질을 제지당하는 일」(美作国神依猟師謀止生贄語) 모두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지금은 이미 옛날의 일이다. 미마사카의 지역에 추잔・고야라는 두 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신체는 추잔은 원숭이, 고야는 뱀이었다. 매년 두 번의 제사에는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산 제물로는 그 지역 미혼의 아가씨를 바치게되어 있다. 이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7]

여기에 아즈마 지역(東国) 출신의 용사가 원숭이의 재물로 지명된 아가씨를 대신하여 재물이 될 것을 결심하고, 평소 키우던 개를 이용하여 미마사카노구니(美作国) 추잔의 원숭이를 모두 물어뜯어 퇴치한다. 원숭이를 퇴치한 용사는 아가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며 번영을 누리며 살았다는 설화의 전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소위 「猿神 퇴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곤자쿠모노가타리』 26권 제8 「히다의 나라 원신 인질을 제지당하는 일」(飛弾国猿神止生贄語)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금은 옛날의 일이다. 불도수행을 하며 돌아다니는 중이 있었다. 정처 없이 다니던 중 히다의 지역에 이르렀다.(중략) 어느 날 밤이 되자 이 집의 주인은 나이 스물 정도의 용모도 아름답고 예쁘게 꾸민 딸을 중 앞에 데리고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뻐하듯이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뿐인 딸입니다」하고 나가버리자 중은 이 여인을 처로 맞아드렸다.(중략) 처는 울면서 말했다. 「이 지역에 영험을 보이시는 신이 계신데 그 신은 사람을 제물로 먹어버립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셨을 때 모두 자기 집으로 오라 한 것은 그 산 제물로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한 사람씩 순서대로 산 제물로 보내지지만 그 제물을 구하지 못할 때는 자기 집의 귀여운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중략) 「제물을 옷을 벗겨 도마 위에 눕히고 제단의 울타리 안에 옮겨놓으면 사람이 모두 사라진 후 신이 요리를 해서 먹어버립니다.」(중략) 이 산 제물로 바쳐진 남자는 후일 이 마을의 부자가 되어 많은 수족을 부리며 처와 행복하게 살았다[8]

---

7) 今昔、美作国ニ中参、高野ト申神在マス。其神ノ体ハ、中参ハ猿、高野ハ蛇ニテゾ在マシケル。毎年ニ一度其祭ケルニ、生贄ヲゾ備ヘケル。其生贄ニハ国人ノ娘ノ未ダ不嫁ヲゾ立ケル。此ハ昔ヨリ近ク成マデ、不怠シテ久ク成ニケリ。(p121)

8) 今昔、仏ノ道ヲ行ヒ行僧有ケリ。何クトモ無行ヒ行ケル程ニ、飛弾国マデ行ニケリ。(中略)其後、夜ニ入テ、年二十許ナル女ノ、形有様美麗ナルが、能装束キタルヲ、家主押出シテ、「此奉ル。今日ヨリハ我思フニ不替、哀レニ可思也。只一人侍ル娘ナレバ、其志ノ程ヲ押量リ可給」トテ、返入ダレバ、僧云甲斐無テ近付ヌ。(中略)妻泣

이 설화도 원숭이(猿神) 퇴치담의 하나로 장소는 히다(飛弾)의 나라 가쿠레자토로 설정하고 있다. 주인공은 일본 전국을 수행하며 다니는 중으로 「가쿠레자토」 전설과 결합되어 제7의 「미마사카의 나라의 신 사냥꾼의 꾀에 의해 인질을 제지당하는 일」보다 한층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여인을 대신하여 원숭이(猿神)를 퇴치한다는 기본적인 모티브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원숭이 퇴치의 무대를 가쿠레자토로 설정한 예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행위가 일반 상민사회와는 단절된 특수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풍습으로 해석되는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설화의 예가 다양한 형태로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을 수행하며 다니는 불도(仏徒)에 의한 부분적 개작과 설화전파 흔적의 한 예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의 119화도 원숭이 퇴치담의 하나이다. 이하 설화의 일단을 개략적으로 인용한다.

(一一九 吾妻人止生贄事 巻一〇ノ六)

지금은 옛날의 일이다. 산요도 미마사카의 지역에 추잔・고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고야는 뱀, 추잔은 원숭이입니다. 그 신에게 매년 제사 때는 산 제물을 바친다. 여인은 용모가 수려하고, 머리가 길고, 피부가 희며, 몸매도 날씬하고, 세련된 모습의 여인을 골라 바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제사는 매년 이루어졌다.[9]

이어서 한 여인이 제사의 산 제물로 정해져 슬퍼하던 중, 아즈마(吾妻) 지역 출신의 용사가 원숭이의 제물로 지명된 아가씨를 대신하여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결심하고, 평소 키우던 개를 훈련시킨 후 이 개를 이용하여 미마사카노구니(美作国) 추잔의 원숭이를 모두 물어뜯어 퇴치한다. 원숭이를 퇴치한 용사는 아가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며 번영을 누리며 살았다는 설화의 전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설화도 이미 인용한 『곤자쿠모노가타리』 26권 제7 「미마사카의 나라의 신 사냥꾼의 꾀에 의해 인질을 제지당하는 일」(美作国神依猟師謀止生贄語)에 나타나는 「원숭이를 퇴치하여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고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기본적인 모티브는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설화가 「원숭이 퇴치담」의 기본적인 골격은

々云ク「此国ニハ糸ユヽシキ事ノ有也。此国ニ験ジ給フ神ノ御スルガ、人ヲ生贄ニ食也。其御シ着タリシ時、『我モ得ムヘ』ト愁ヘ喤シハ、此料ニセントテ云シ也。年ニ一人ノ人ヲ廻リ合ツヽ、生贄ヲ出スニ、其生贄ヲ求不得時ニハ、悲シト思フ子ナレドモ、其ヲ生贄ニ出ス也。」(中略)「生贄ヲバ裸ニ成テ、俎ノ上ニ直ノ臥テ、瑞籬ノ内ニ掻入テ、人ハ皆去ヌレバ、神ノ造テ食』トナン聞。(中略) 此ノ生贄ノ男ハ其後、其郷ノ長者トシテ、人ヲ皆進退シ仕ヒテ、彼妻ト棲テゾ有ケル (pp127~139)

9) 今は昔、山陽道美作国に中山、高野と申神おはします。高野はくちなわ、中山は猿丸にてなんおはす。その神、年ごとの祭に、かならず生贄を奉る。人の女のかたちよく、髪長く、色白く、身なりおかしげに、姿らうたげなるをぞ、えらびもとめて奉りける。昔より今にいたるまで、その祭おこたり侍らず。(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p249)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승자의 전수과정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여져 계승·변모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쿠레자토에 잠입한 마다고로가 원숭이에게 독약을 먹여 퇴치하고 유괴된 인질을 구출하여 귀향한다는 모티브는 「슈텐도지」(酒呑童子)[10] 계통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화의 전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쿠레자토」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쥐가 등장한다. 쥐는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에서 「허성의 정령으로 다이코쿠텐진의 사자」(虛星の精霊として、大黒天神の使者)라 묘사된다. 허성은 중국 인도 등의 천문설에 기초한 달의 운행권(運行圈)을 28로 나눈 것의 하나로 이날은 신월(新月)에서 만월에 이르는 과정 중 신월에 속한다. 따라서 허성의 정령인 쥐는 밤에도 눈이 밝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신양동굴」로부터 받아들인 동양철학적 사고에 의한 묘사이고, 여기에 일본적인 「다이코쿠텐진의 사자」로서 쥐의 묘사가 첨가된다. 쥐와 다이코쿠텐진과는 연상어의 관계로 『近古小説新纂』, 『和漢三才図会』 등의 사전류에서도 쉽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즉 다이코쿠텐진의 사자인 쥐가 서식하는 곳은 어두운 구멍(이계, 이상향)인 「가쿠레자토」이고, 이곳이 일본의 지역으로는 고하다야마(木幡山)로 설정된다.

환언하면 쥐구멍(鼠の穴、隠里)이 있었던 장소를 「가쿠레자토」의 출전으로 인정되는 「신양동굴」에서는 隴西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확인한 중국의 백과사전 『태평어람』(太平御覧)에서 쥐와 관련된 장소로 「晋太康地記曰鳥鼠之山在隴西首陽県穴入三四尺鼠在内鳥在外」의 기술과 같이, 쥐와 관련된 전승적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의 것으로 바꾸어지면 고하다야마(木幡山)의 쥐의 가쿠레자토로 설정되는 것이다.

쥐구멍이 존재하는 지명으로서 고하다야마는 오도기죠시(お伽草子)의 「가쿠레자토」에도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단풍이 붉게 물드는 이나리야마, 소나무에 걸리는 등나무 숲, 고하다의 들녘에 나왔다 (중략) 혹시나 평소 소문에 듣던 이 들녘에 쥐가 사는 가쿠레자토가 있다고 하는.[11]

고하다야마의 들녘에 나오니 큰 구멍 안에서 사람소리가 들린다. 이곳이 소문에 듣던 쥐가 사는 가쿠레자토인가 하고 숨어들어 가보니, 그곳에는 아름다운 별천지가 펼쳐지며

---

10) 「슈텐도지」(酒呑童子)의 개요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슈텐도지 토벌의 칙명을 받은 미나모토요리미츠(源頼光)가 우라베스에다케(卜部末武), 와다나베츠나(渡辺綱), 사카다긴토키(坂田金時) 등의 무장과 함께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단바(丹波)의 나라 센조가 다케(千丈が岳) 오니가 시로(鬼が城)에 잠입하여 슈텐동자 등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여 살해한 후 이케다 추나곤(池田中納言)의 딸을 비롯하여 유괴된 아가씨들을 구출하여 귀향했다는 이야기이다.

11) 紅葉色濃き稲荷山、松に懸れる藤の森、木幡の野辺に出でたりけり。(中略) 若しは日頃聞き伝へ しこの野辺には、鼠の棲む隠れ里のありといふ。(お伽草子、岩波文庫 p330)

쥐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전개이다. 즉 고하다야마 근방에 「가쿠레자토」 전승이 존재했는지 어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오도기조시 「가쿠레자토」의 「혹시나 평소에 소문에 듣던 이 들녘에 쥐가 사는 가쿠레자토가 있다고 하는」(若しは日頃聞き伝へしこの野辺には、鼠の棲む隠れ里のありといふ)라는 전언에 의한 묘사를 통하여 적어도 작자 아사이 료이가 쥐가 사는 「가쿠레자토」의 지명으로 「고하다야마」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5.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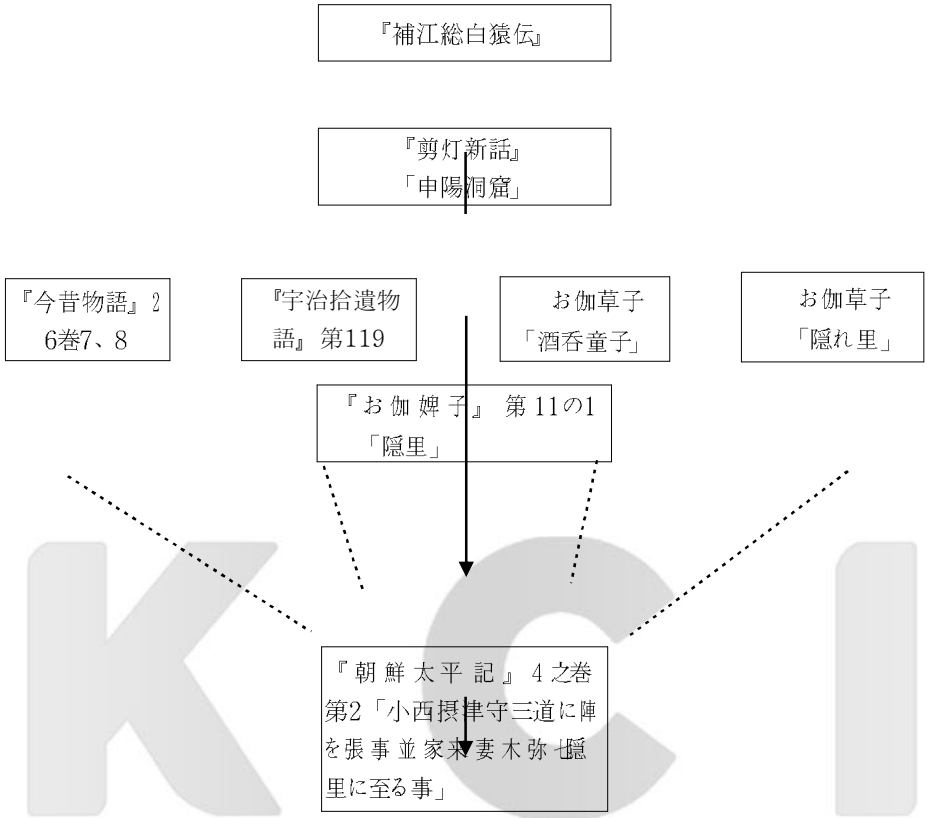
전기(伝奇)소설에서는 인간세상과 다른 세계를 그리는 일이 많다. 「가쿠레자토」의 세계도 그러한 것으로 원숭이와 쥐를 등장시켜 인간세계와 동물의 세계(異界)를 넘나드는 별 세계를 그리고 있다. 쥐들이 사는 소위 「가쿠레자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또 갈 수도 없는 仙境의 입구라 여겨져,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부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천지의 세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동경의 장소로 묘사되는 「가쿠레자토」를 쥐들로부터 탈취한 원숭이들은 인간까지도 포로로 잡아들여 시중들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여기에 무용을 즐기던 주인공이 자신의 부과된 목표를 위하여 수도로 가던 중 만난 이계의 원숭이들을 퇴치하고 쥐들에게 본래의 거주지를 돌려주고 여인도 구출하여 인간세계로 다시 돌아와 여인들을 처로 맞이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전설적 패턴의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쿠레자토」의 세계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당대소설 『補江総白猿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등신화』의 「신양동굴」로, 또 이것을 출전으로 『오도기보코』의 「가쿠레자토」로 이어져, 그리고 이것을 계승한 『조센다이헤키』의 4권 제2에 「고니시 셋츠노가미 삼도에 진을 치는 일 및 부하 쓰마키 야시치 가쿠레자토에 이르는 일」(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로 이어져 하나의 수직적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쿠레자토」의 세계는 『今昔物語』 巻26 제 7・8, 『宇治拾遺物語』 제119화 등과 같은 「원숭이를 퇴치하고 인질로 잡힌 여인을 구출하는」 이야기의 모티브와 이미지적한 오도기죠시(お伽草子) 「슈텐도지」(酒呑童子)、 「가쿠레자토」(隠れ里) 등 다양한 세계를 혼합한 형태를 토대로 이루어진 전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토양 위에 일련의 「가쿠레자토」 물이 계승・변모해 가는 것이다.

또한 「가쿠레자토」의 세계에 있어서 이계(異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실증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하 「가쿠레자토」의 계보 및 영향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補江総白猿伝』
『剪灯新話』
「申陽洞窟」
『今昔物語』26巻7、8
『宇治拾遺物語』第119
お伽草子
「酒呑童子」
お伽草子
「隠れ里」
『お伽婢子』第11の1
「隠里」
『朝鮮太平記』4之巻第2「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

【参考文献】

・박찬기(2001)『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사.p52 ~73
・江本裕(1988)『お伽婢子』、東洋文庫.
・江本裕(1972)「了意怪異談の素材と方法」(『近世文芸研究と評論』第2号
・小瀬甫庵(1625)『太閤記』、改定史籍集覧 6.
・島津久基(1936)『お伽草子』、岩波書店.p273~292,p330~331
・若月保治(1944)『古浄瑠璃の研究』第二, 桜井書店
・「申陽洞窟」(『剪灯新話』,中国古典文学全集,20)
・『研究資料日本古典文学』、明治書院.
・新日本古典文学大系『宇治拾遺物語』、岩波書店.p249~256
・『日本伝奇伝説大辞典』(1987)、角川書店. p239~240
・日本の古典31『今昔物語』、小学館.p121~139
・『朝鮮太平記』(1713)、早稲田大学図書館所蔵.

KCI

要　　旨

説話ではこの世ならぬ別世界を描くことが多い。「隠里」の世界もその一つで、猿と鼠を登場させ人間界と異界を往来する別天地を展開している。「鼠が棲む隠里」は人間に知られざる場所、また行くことのできない仙境の入口と考えられ、その中には富貴満足りた別天地の世界と認識された。このような憧れの場所と認められた「隠里」を鼠から奪い取った猿たちは人の娘までも誘拐して何の不自由のない暮らしを営んでいた。ここに「武芸を楽しみ、弓馬の道に稽古の功をかさね、しかもそのこころ根きはめて不敵もの」である主人公によって異界の猿たちは退治され、人の娘は救われる。それに鼠たちは本来の棲み家に戻され、その恩を報いる形で主人公を再び人間界に導き黄金までも与える。人の娘を救出して両親の家に帰った主人公は娘を妻に迎え末長く富裕に暮したという伝説的パターンの説話が成立するのである。

こういった「隠里」の世界は、直接的には中国の唐代の小説『補江総白猿伝』に遡り、それから『剪灯新話』の「申陽洞窟」に,これを基に『お伽婢子』の第11の1「隠里」が翻案されまたこれを典拠にして『朝鮮太平記』4巻第二「小西摂津守三道に陣を張事並家来妻木弥七隠里に至る事」に至る一つの系譜を立てている.

しかし「隠里」のこのような世界は既に『今昔物語』巻26第7「美作国神依猟師謀止生贄語」、第8「飛弾国猿神止生贄語」、『宇治拾遺物語』第119話「吾妻人生贄をとゞむる事」にも見えるのであり、このような「人身御供の娘の身代わりに立って猿神を退治し、生贄の娘を救出す」という基本的モチーフとお伽草子「酒呑童子」、「隠れ里」等の多様な趣向を綯交ぜた土台の上に伝承性を伴った形で成立されるのであり、その土壌の上に一連の「隠里物」が継承・変貌されていくのである.

キーワード: 隠里, 朝鮮太平記, 伽婢子, 申陽の洞窟, 伝承性, 説話,
古浄瑠璃, 猿神退治, 鼠の隠れ里, 虚星の精霊

투　　고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11
3차 심사 : 2003. 7. 8

住　　所: 광주시 서구 풍암동 1130번지 금호1차아파트 101 동106 호
電　　話: (자택) 062-682-3747　(연구실)061-450-2165
E-mail : parkchan@chungkye.mokpo.ac.kr